

■ 남구 이야기 - 대연동

History

큰못 속 용의 승천을 기다리며...



박 태 욱

당시의 대연동은 농번기와 해서 물고 때문에 다름이 일어나는 일도 없었으며, 넉넉한 물의 유입으로 이웃 간에는 늘 따뜻한 정분이 오갔음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은 후손들의 '묘답' (후손들이 삼시일반 각출하여 마련한 조상의 묘 터, 또는 그런 전답)으로 이어져 그것이 오늘날에는 문중기금으로 적립되어 때로는 지역발전기금이거나 장학금으로 회사되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당시에는 1년 중에서 4월 초파일이면 근동 사람들이 황령산 봉수대로 올라가 나름대로 마련한 음식을 갈라먹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풍습도 있었는데, 모처럼 얻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머슴들이나 소작인이 많았으며, 해방 전까지만 해도 남녀노소가 모여들던 그곳에는 반짜 노점상까지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춘흥에 겨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간혹 인근지역으로 시집갔던 딸이 그 날을 택해 친정 식구들을 만나 고향론 시집살이를 웃고 뜰에 적셔내기도 했다고 한다.

친정나들이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 멀리 수영이나 기장, 또는 동래 지역이나 주례 등지로 시집 간 아낙들이 황령산을 넘어 대연동 일대나 용호동, 용당동 등지의 친정까지 몰래 다녀가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예 나물 캐러 가는 양, 혹은 삼 때러 가는 양, 입은 옷 그대로 나와 그곳에서 그러한 친정 식구들을 만났던 것이다. 마음 놓고 볼 수 없었던 '반만 보는 시간', 그 예절했던 사연이 켜켜이 쌓였기에 간혹 노인 분들 중에는 지금도 황령산을 '반보기산'이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코흘리개 때인 60년대 무렵만 해도 그 황령산을 '황경산' 혹은 '황강산'으로 부르기도 했다. 예로부터 볼품없이 황랑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된 볼품없는 여러 마을을 돌아 남천만, 용호만에 펼쳐진 비단결 같은 모래밭(현재의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정문쯤)으로 흘러 들어갔고, 갯가에는 어느 새 연어가 이루어져 그 일대를 '갯번덕'이라 불렀다.

갯번덕 앞은 경사가 아주 완만해서 바다 속으로 100m 이상 들어가야 겨우 가슴에 찰랑거릴 정도로 수심까지 낮았으며, 감자철이 되면 근동의 아낙들이 이곳 바닷물에 배추를 씻어 그대로 김장을 담았을 정도



1960년대 전제들에서 바라본 대연동 일대의 전경 중앙부분이 경성대가 있는 용소.

“4월 초파일이면 근동 사람들이 황령산 봉수대로 올라가 나름대로 마련한 음식을 갈라먹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던 풍습도 있었는데, 모처럼 얻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머슴들이나 소작인이 많았으며, 해방 전까지만 해도 남녀노소가 모여들던 그곳에는 반짜 노점상까지 성시를 이루었다

로 염도도 놓고 청정한 해역이어서 일반인이 수산물까지 양식하고 있었다. 신발주머니 같은 것을 열구리에 차고 들어간 아이들이 그곳에서 대합조개, 맛조개, 사또고둥 등을 주워 담다가 일본인 주인이 개를 앞세우고 잡아오면 남천동 쪽으로 줄행랑을 쳐 붙잡히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주워온 것 중에서 사또고둥은 크기가 작아 솔이나 냇비에 몽땅 부어 폭 삶은 다음 탕자나무 가시로 속살을 꺼내 먹었는데, 미처 나오지 못한 부분은 공지를 갠 뒤 입으로 쪽쪽 빨면 흡스름하면서 특소한 특유의 맛 때문에 남녀노소가 라지 않던 간식거리였다. 또 대연 4동부터 용호동 일구에 이르는 지역은 큰 거렁(개울)이 형성돼 있어서 때로는 물을 가둬놓고 고기를 잡거나 돌멩이 사이에서 뱀장어를 잡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대연동 일대에 부락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던 일본인들이 예닐곱 가구 살았는데, 지금의 대연성당 뒤편에 두 가구가, 대연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두어 블록 떨어진 곳에 대여섯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대연성당 뒤편(오투기 식품 인근)에 살던 일본인은 조그만 양계장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매꾸기를 잡아 갖다 주변 1전씩을 주었

“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는 황령산은 좌청룡 우백호의 줄기를 뿜어 오늘날도 못골을 감싸 안고 있다. 마침 그 큰못(대연) 위에 남구 신항사가 지난 3월 20일 막을 올렸으니 만고상청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나날이 그 푸른 날 한가운데서 유구한 용의 전설처럼 세계 속으로 승천하는 남구가 되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문현동을 시작으로 우암동, 감만동, 용호동, 용당동을 돌아 대연동에 다다른 '남구 기행',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남구문화원 제1회 문화유적답사기

한국 속의 작은 한국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목표로 올해 개원한 부산남구문화원은 지역민의 역사인식 제고 및 문화원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한국속의 작은 한국'이라 불리는 유교문화의 본고장 경북 안동으로 2008.7.1(화) 제1회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안동(安東)은 고려 태조 왕건이 삼태사(김행, 김선평, 장정필)의 도움으로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후 '동쪽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고을이름을 하사한 곳이다. 이때 '김행'은 관세 성을 하사받아 안동 관세의 시조가 되고 다른 두 사람도 안동 김씨, 안동 장씨의 시조가 되었다.

첫 번째 답사지로 퇴계 이황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서 서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한 도산서당 및 그를 기리기 위해 지역유생들이 삼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도산서원으로 갔다.

고봉 기대승과의 사단칠절(사단(인의예지)와 칠절(희노애락오욕))에 대한 8년간의 논쟁 이후 퇴계 이황은 유생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아왔다. 그의 사상(주리론,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성 등)은 한국유학

의 가장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 왔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 중 몇 명이나 그의 사상을 일부뿐이냐마 알고 있을까? 그와 현대인과의 단절을 도산서원일시사단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조선 정조시절 퇴계의 학역을 거러 도산서원에서 과거시험을 보게 했는데, 응시자(3,632명)가 너무 많아 서원에서 볼 수 없어 백사장으로 옮겨 치렀고 이를 거러 번암 체제공(蔡濟恭)이 비문을 써서 세운 장소가 시사단이다. 안동댐으로 물에 잠기게 된 시사단은 1976년 높이 10m, 반경 10m의 원형축대를 쌓고 재건축했다. 과거의 영광이 가로막은 물처럼 단절되어 있다.

그곳에서 나는 건축가로서의 퇴계를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직접 설계한 도산서당과 농우정사는 뒤편의 화려한 서원건물과 앞쪽의 수려한 낙동강 사이에서도 고고하게 빛난다. 도산서당에 앉아 자연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네 개의 문을 내고 좌우로 반칸씩 건물을 늘려놓고 32칸짜리 작은 집안양 겹손 때는 모습이 유쾌하다. 학생들 기숙사인 농우정사도 학업에 힘쓰라는 의미로 공(工)자 형태로 집을 지어놓고 처마를 짧게 해서 햇볕이 적당히 드나



남구문화원 회원들이 전문가로부터 도산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들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위계 질서를 중시하여 저학년이 묵는 서쪽보다 고풍년이 묵는 동쪽의 창문 개수를 1개더 늘리는 센스가 돋보인다.

안동간고동어루 점심을 먹고 안동의 얼굴 '제비원석불'의 그 큼직한 명치에 소원을 빌어본다. 제비원석불과 그 위쪽의 삼층석탑을 바라보니 신라 남산이 생각난다. 혹시 안동 사람 중 누군가가 경주 사람처럼 제비원석불 뒷산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병산서원으로 가는 길에 부용대에 올라 우리나라 명당 중 최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화회마을을 바라보니 저절로 풍수를 느끼게 된다. 연화부수형, 태극형, 다리미형, 행주형 등의 풍수지명으로 불리는 화회마을이 햇살에 반짝이는 화전물길 뒤에서 그 도도한 역사를 뽐내고 있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을 배향한 곳이다. 서원 건물 자체는 작지만, 서원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원임에 틀림없다. 서원앞 병산과 서원뒤 화산을 포함하여 주변 모든 자연을 서원의 공간으로 끌어들이 설계가 한없이 존경스럽다. 특히 서원 강당인 입교당 중앙의 원장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한국 건축의 백미임을 실감나게 한다. 눈앞 만대루를 통하여 절벽병풍으로 변해버린 병산, 낙동강, 백사장의 모습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인다.

시간이 허락치 않아 고려시대 건물인 극락전 등이 있는 목조사찰의 보고인 불전지와 안동시에 퍼져있는 여러 전탑 등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안내를 해주시는 국토와 환경연구소 우주호 박사 및 안동지역 문화유산해설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승열(남구문화원 사무국장)

■ 추억으로 가는 별밤열차 '부산 갈매기' 시승기

한 여름 밤의 낭만에 빠지다

부산역~해운대~송정~남창역 왕복 운행
도심야경 해변 조망... 고급 와인 서비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실감이 나는 계절이다. 불타는 태양, 흰 파도 넘실대는 바다,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여름 해변. 밤이 되면 추억과 낭만의 분위기로 모습을 바꾸어 젊음을 유혹하는 또 다른 여름해변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부산의 여름에 또다른 명물이 탄생했다. "부산 갈매기"라는 다투어 달고 별밤열차가 달린다. 부산으로 파서를 오는 여행객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낭만과 향수를 전해 줄 이 열차는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해운대와 송정을 거쳐 울주군 남창역까지 왕복 운행하고 있다. 가끔 TV에서 환상적으로 꾸며진 와인과광열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 지난 7월 4일 밤 7시30분 부산역에서 별밤열차의 시승식이 있었다.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 열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일행은 멈춰서었다. "여기가 기차 안이 맞나?"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장과 아름다운 조형, 바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한 실내분위기에 진한 흥분이 일었다. 시승열차에 탄 모든 승객들도 한껏 들떠 삼가된 모습이었다. 7080 파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열차가 움직이자 단정하게 차려입은 승무원들이 와인과 샌드위치 제공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밤의 낭만과 향수를 즐길 시간이다. 마주 앉은 일행들과 와인 잔을 부딪치면서 한편의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파란 별빛 아래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맘껏 나누는 사랑의 향연,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잊는 여유로운 미소,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행복한 속삭임들이 일상의 노곤함을 잠시 잊게 하였다. 웃고 즐기는 사이 스디어 작고 소박한 남창역에 도착. 도자기 향아리와 예쁜 꽃들로 가꾸진 역사 앞에서 남창역

주변의 볼거리 소개와 역장이 남송한 자작시도 별밤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일조를 하였다. 새마을호 열차 7량을 개조하여 별밤열차의 건설에 맞춘 이 특별열차는 7월 4일부터 9월 15일 까지 매주 금요일과 둘째·넷째 토요일 밤 7시 30분에 부산역을 출발 남창역까지 3시간 남짓 왕복 운행한다. 피서철이 절정인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매일 저녁 운행한다. 코레일 부산지사와 코레일 투어서비스는 별밤열차



별밤열차 '부산갈매기'에 오른 승객들이 포도주잔을 부딪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목재 파쇄기 많이 활용해 주세요』

우리구에서는 2008년 8월부터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주택,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및 고사목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파쇄처리하여, 그간 미관훼손, 환경오염 및 고사목 처리방법 문의 등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 간 : 2008. 8월 부터 ~
2. 장 소 : 구 지역 대연양묘장 내 (대연3동 소재)
3. 내 용
▷예약접수 후 월1회 파쇄처리 (물량에 따라 조정)
▷단, 쇠붙이가 붙은 수목, 가구, 나무뿌리 등은 제외
4. 이용방법 : 전화 예약 후 개인별 운반
5. 연 락 처 : ☎ 607-4534 (지역경제과 담당자 우희준)

2008 정기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조사기간 : 2008. 7. 2. ~ 7. 31.
- 조사대상 : 각종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지방문 실태조사
- 조사내용 : 신축, 증축, 멸실로 인한 면적 및 용도 변경, 소유자 인적사항등
- 부과기간 및 납기
 - 부과 기간 : 2007. 8. 1. ~ 2008. 7. 31.
 - 부과기준일 : 2008. 7. 31.
 - 납 기 : 2008. 9. 16. ~ 9. 30.
- 부과대상 :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각각 소유자분별에 따라 부과=100㎡미만 소유자는 지면제시자료준액 1억원이상의 경우 부과)
- 부과기준
 - 부 담 금 : 시설물의 각종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 부담금 : 규모, 급지별 차등 적용 (700원, 500원, 350원)
 - 교통유발계수 : 사용용도에 따른 유발계수 적용 (0.47 ~ 5.72)
- 납부의무자 : 2008. 7. 31.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 미사용신고안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
 - 신고대상 : 30일 이상 미사용시설물 소유자
 - 제출기간 : 시설물미사용신고서와 증명자료 첨부하여 2008. 8. 14. 까지 남구청 교통행정과(주차과장담당) 제출

교통행정과 ☎ (051) 607-4575 팩스) 607-4559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사업 후원하세요

-작은 나눔 큰 사랑-

우리 남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 중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역복지의 큰 사람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후 원 방 법◆

- 모금기간 : 연중 계속
- 후 원 자 : 민간기업체, 단체, 주민, 공무원 등 누구나
- 모금계좌 : 부산은행 315-13-000043-8 (예금주 : 공동모금회부산지회)
- 문 의 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계담당자 김성희 ☎ 607-4862

저소득층 자녀교육지원사업 후원금 기탁자 명단

(2008. 2. ~ 6. 30까지 접수분)

모금총액 : 4,514,010원

- 남구공무원 자부리 후원금 : 1,124,010원
 - ▶ 3월 271,030원 ▶ 4월 283,000원 ▶ 5월 후원 283,010원 ▶ 6월 후원 286,970원
- 일반 후원금 : 3,390,000원
 - ▶ 강용덕 666천원 ▶ 김동원 666천원 ▶ 신형규 668천원 ▶ 고정용 1,000천원 ▶ 강영석 98천원 ▶ 신경철 22천원 ▶ 윌리스병원 200천원 ▶ 박천일 20천원 ▶ 김수경 50천원

친환경 주차사업(Green Parking) 신청하세요!

담당 허물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골목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주차사업(Green Parking)을 시행합니다. 지역주민의 주차고통, 어린이 교통사고 빈번, 화재시 소방차 진입관란으로 안전위협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차량중심의 골목길 환경을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만드는데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예산 지원
 -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설치,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 방법불안 해소를 위한 보안시설 및 방범용 CCTV 설치
 - 우편함, 기타 전주시설(필요시) 등 시설물 정비

■ 지원금액

- ▷ 골목단위 5가구 이상 참여시 예산 지원
 - 가구당 주차면 1면기준 550만원, 2면은 700만원 지원하고 초과 1면마다 100만원씩 추가 지원(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08. 8. 15일 한
- 신청장소 : 남구청 교통행정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신청(☎ 607-4551~5)
- 신청대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골목단위 5~30가구(골목단위 주민참여율 60%이상 지역)
- ※ 재개발사업인가지역, 재건축하지지역 제외

교통행정과 ☎ 607-4451 ~ 5